

■ 편집후기(編輯後記)

◆ 12대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로 정확하게 2년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하는 71집부터 78집까지 8권을 12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 권의 학술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모집공고부터 심사, 게재확정, 원고수정의 과정을 거쳐 출판사에 보내지고, 출판사에서는 투고자와 편집위원, 출판이사의 교정과정을 거쳐 최종 출판까지 단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전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다. 경이로울 따름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12대 편집위원회의 첫 번째 출판(71집)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두 번째 출판을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해 있다는 점이다. 실무편집위원들이 터치를 하면서 마치 역전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부터 8권의 학술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12대 편집위원회 실무 편집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섯 명이다. 최혜정, 전자연, 김혜연, 신원선선생님이 순서대로 두 명씩 짝을 이루어 학술지를 펴내는 데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할 것이다. 고쿠쇼 카즈미선생님은 12대 편집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해외 외국인연구자를 위한 365 One Stop 논문투고시스템” 운영 담당자이다. 한국어를 모르는 해외의 일본어학연구자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쉽게 투고가 가능하도록 투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12대 편집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일본어학 전문학술지 “日本語學研究”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 (姜)

◆ 平素より、本学会学会誌にご投稿くださり、厚くお礼申し上げます。『日本語学研究』71輯を皮切りに、12代編集委員会が始まりました。11代編集委員会の先生方から詳細な引き継ぎをしていただき、不安だった気持ちが和らいだことが昨日のこのように思い出されます。11代編集委員会の先生方にこの場をお借りして感謝申し上げます。

12代編集委員会では、韓国語でお困りの海外外国人研究者のみなさまが円滑に論文投稿できるよう、サポート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365 One Stop 論文投稿システム」を新たに導入いたしました。複雑な手続きなどが理由でご投稿をお悩みだった方もいつでも気軽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不慣れな部分も多々あり、何かと至らぬ点もあるかと存じますが、12代編集委員会一丸となって努める所存です。

今後とも本学会誌を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國生)

◆ 이번 71집은 12대 편집위원회가 꾸려지고 처음 발행되는 논문집인 만큼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 투고 모집 단계에서부터 발행에 이르기까지, 투고자의 입장에서 미처 알지 못 했던 많은 수고와 논의의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동안 받아 온 수혜에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소중한 논문을 투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365 one stop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해외 연구자들의 투고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申)

◆ 2022년은 12대 편집위원회가 발족되며 71집의 모집과 발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논문 접수부터 여러 번의 편집회의까지 매번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한 줄 한 줄 논문을 써 내려갔을 연구자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연구를 해주신 연구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본어학연구」에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崔)

◆ 지금까지는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학술지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 학회의 편집위원을 맡으면서 학회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투고논문 모집

부터 심사위원 위촉, 논문 게재 여부 통보, 출판사와의 작업, 게재논문의 사독 등 한 번의 학술지가 발행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작업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학술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전대 편집위원장님들과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학술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

◆ 편집이사라는 일을 처음으로 맡아 미숙한 탓에 사실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베풀어주시는 도움으로 업무를 배워 나가며, 학술지가 발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는지 다시금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옥고를 투고해 주신 연구자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全)